

르노 전기차 인포테인먼트 공급 LG전자, 'GAS 라이선스' 획득

(구글 자동차서비스)

르노 메간 E-테크에 시스템 공급 구글의 '안드로이드10' 버전 적용 독립구동 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

LG전자가 르노의 새 전기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책임지게 됐다.

LG전자는 르노 메간 E-테크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르노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OS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0을 적용하고 구글 자동차서비스(GAS) 라이선스를 받았다. 안드로이드 10 버전으로 GAS 라이선스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드웨어와 독립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처음 개발했다. 클러스터에서도 구글 맵 화면을 보거나 음악, 영상 등을 제어할 수 있고, FOTA로 항상 최신 OS로 업데이트 가능하다. 충전 상태를 차량 밖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르노 E-테크에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LG전자

운영하는 데 쓰이는 'SAFE' 방법론을 개발에 활용하며 업계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사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었다.

르노 소프트웨어 팩토리 얼라이언스 글로벌 부사장 티에리 카말은 "디지털 조종석은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켜 개인화와 편안함을 향상시켰다"며 "LG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메간 E-테크에

뛰어난 안드로이드 콕핏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시장 수요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 자동차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고객사와 긴밀히 협업해 차량 내 차별화된 경험을 지속 선보이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LG전자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AI기술 동향·연구성과 공유

'삼성 AI포럼 2021' 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1일 온라인에서 '삼성 AI포럼 2021'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 AI포럼은 전세계 AI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AI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연구 방향을 다룬다.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AI의 발전이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미래에는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도전 과제들이 아직 많다"며 "삼성전자는 AI 생태계의 핵심기술 회사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연구자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이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인 연사들에게 영감을 얻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종합기술원이 첫날, 삼성리서치가 다음날을 책임진다.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삼성 AI포럼 공동 의장이자 삼성 AI교수인 캐나다 몬트리올대 오슈아 벤지오 교수는 기초강연을 통해 AI 알고리즘이 인류 발전 근간인 물리와 화학 등에 적용되고 있다며, 새 소재 발굴을 위한 분자 구조 생성 알고리즘을 소개했다.

전세계 AI 분야 연구자와 학생들이 AI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질의 응답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재용 기자

LG화학 'CEM 사업부' 통합작업 완료

온라인 새 출발 선포식 진행

LG화학이 인수한 LG전자의 화학·전자재료(CEM) 사업부가 LG화학과의 통합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나선다.

LG화학은 1일 충북 청주시 CEM 공장에 위치한 본관동 강당에서 신학철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새 출발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CEM사업부는 LG전자의 비즈니스 솔루션(BS) 사업본부 산하에서 분리막 코팅 등 배터리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해 왔다. LG화학은 지난 7월 배터리 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250억원을 투자해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LG화학은 지난 10월 유럽 분리막 시장 공략 및 사업 강화를 위해 일본 도레이와 헝가리에 분리막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8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CEM사업부는 안정적인 사업 정착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

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 내 직속 조직인 CEM사업부담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CEM사업부담당이 속한 첨단소재 사업본부의 남철 본부장은 임직원들에게 "우리 함께, 성장을 꿈꾸다"를 주제로 배터리, 정보기술(IT) 소재, 자동차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글로벌 톱 소재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CEM사업부담당은 국내 청주, 중국 항저우, 유럽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약 800여 명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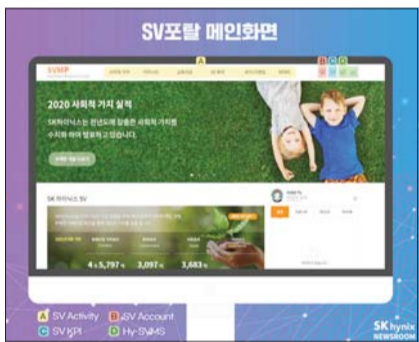
SK하이닉스, 사회적 활동 모은 페이지 오픈

개별운영 채널 모아 'SV포탈' 오픈 SV성과 등 우수사례 등 공유 계획

SK하이닉스가 사회적 가치 제고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마련했다. SK하이닉스는 11월 1일 'SV 포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포탈은 구성원 주도로 조직된 'DBL 실천단' 등 개별로 운영되던 채널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재된 SV 채널을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기 위한.

메뉴는 ▲구성원의 SV 활동을 지원하는 'SV Activity' ▲SK하이닉스 이



SV 포탈 메인 /SK하이닉스

해관계자와 함께 SV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SV Account' ▲선정된 SV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SV KPI' ▲SK하이닉스의 모든 SV 성과를 발굴, 취합, 관리하는 'Hy-SVMS'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김재용 기자

포탈 구축 프로젝트는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성과관리팀이 주도해 DT 담당, DBL 실천단 운영진과 협업했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파악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성, 이후 UI와 기능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SV포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추가적인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공표 시스템, SK그룹 실적보고 등과 연계해 SV 실적, 과제, 성과를 자산화하고, 현장에서 어렵게 발굴한 SV 성과들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SK네트웍스, 박상규 단독대표 체제 전환

'형령·배임' 혐의 최신헌 회장 사임

SK네트웍스가 박상규 단독대표(사진)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SK네트웍스는 각자 대표이사였던 최신헌 회장이 지난달 29일자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형령 및 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4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회사 경영 뿐 아니라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를 단순히 사뿐 아니라 렌탈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성장시켜 왔다. 그룹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존력을 강화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분은 0.83% 수준에 불과하다. /김재용 기자

삼성중공업 1.3조 유상증자 성공

삼성중공업이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우리사주조합 완판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도 초과 청약을 달성하며 청약률 103.3%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발행 예정 주식 수는 2억5000만주이며 초과 청약 주식수는 1782만5990주이다.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조282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초과 청약 배정 비율은 54.07%이다. /양성운 기자

SK온, 글로벌 신입사원 수시채용

14일까지 서류 접수·면접 진행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된 배터리 사업 신설법인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SK온은 1일부터 글로벌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생산기술, 품질관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 경영지원 등이다. 특히 생산기술, 품질관리 분야의 경우 신입사원에게 품질관리 노하우와 생산 안전성 기술을 교육한 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거점에 주재원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SK온은 이달 14일까지 글로벌 신입사원 서류를 접수하고, 필기전형 및 면

접 전형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력사원 채용은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다.

SK온은 올해 10월 1일 출범 이후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직접 미국 현지에서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고, 또 최근까지는 미국 중부, 남부 지역 7개 대학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취업설명회(리쿠르팅)를 진행했다. 취업설명회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다양한 전공의 학·석사 및 박사 300여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양성운 기자